

# 제40절의 숨겨진 역사 - 열둘째 수

열둘이라는 수

Jeff Pippenger

2026-05-23

흔히 다섯 사람이 동일한 자동차 사고를 목격했다면, 그 다섯 증인은 같은 파손 사고에 대하여 서로 다른 다섯 가지의 진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께서 인류에게서 거두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러한 증인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개인적 세계관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본 것을 꾸며 내고 거짓말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덕 있는 일이라고 믿는 자들이 틀림없이 포함될 것이다. 숨겨진 역사 속에는 예언적 진리의 여러 다양한 계열이 있는데, 이는 동일한 사건들에 대한 서로 다른 증인들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됨이 없으나,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종종 인간의 해석에 결함이 있다. 그러나 이 역사에 대한 성경적 증언들은 바르게 나누어질 때, 모두 서로 일치한다.

베드로는 역사 가운데 있는 십사만 사천의 상징이며, 그의 증언은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의 각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어 외적 환상의 첫 번째 시험에 관여한 자로서, 그 다음 내적 환상의 두 번째 시험에 이르며, 이어서 내슈빌의 불덩이들의 리트머스 시험을 거쳐, 이방인들에게 기치를 들어 올리는 데까지 이르는 점진적인 역사를 나타낸다.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의 글로벌리스트들,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의 RINO들로 이루어진 모든 글로벌리스트들을 선동하는 자로서 그 숨겨진 역사 속에 있다. 그는 짐승의 우상과 연관된 예언적 특징들을 성취하는데, 곧 일곱 중에 속한 여덟째로서 정치적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자이다. 그는 그 숨겨진 역사 전반에 걸쳐 자리하고 있으며, “활동적인 전제정”이 먼저 미국에, 그 후에는 온 세계에 강요될 때 통치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트럼프의 대응물로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두 뿔 가운데 하나인 배도한 개신교는 마카베오의 역사 속에 있다. 국제연합과 러시아 안에 나타나는 용의 권세의 다양한 현현들은 그 역사 속에서 증언한다. 교황권은 네 백성의 강포한 자들로서, 모든 것을 서로 연결하고 그 이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거기에 있다.

베드로는 바로 당신, 사랑하는 독자이다. 베드로는 십사만 사천의 기치 가운데 포함될 후보자이다. 베드로는 여러 예언적 노선의 한가운데, 곧 중간 지점에 서서,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이상(異象)에 의해 이루어지는 변화를 받고 있다. 베드로는 변화산 위에 있으며,  $\omega\iota\upsilon\nu\tau\eta$ 서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반면, 미국은 짐승의 우상을 형성하고 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자아는 더욱 적게 하고 하나님은 더욱 많이 모셔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역량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백성의 능력은 상당한 정도로 무가치한 대상들에 소모되고 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하찮은 생각과 주장에 바쳐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산에 올라가, 더욱 직접적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 이전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게 될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의 백성은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는 결코 이러한 헌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만큼이나 회심이 필요하다. 그들이 이와 같이 소성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신적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될 때, 그 사업은 그루터기 불 속에 번지는 불길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기원을 분별할 수 없는 도구들을 사용하실 것이며, 천사들은,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이루었을 축복된 사업을 수행할 것이다. 이제 그 사업이 사람에게 제시되어 있다.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현재 일꾼들 앞에는 빗장이 풀리고 활짝 열린 문들이 많이 있다. 그들이 이 문들로 들어갈 것인가? 주인의 명령에 따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준비가 된 자가 누구인가? 마게도냐의 부르짖음이 온 세상 각처에서 애절한 호소로 우리에게 이르기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한다." Review and Herald, 1885년 12월 15일.

우리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산에 올라가 회심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 정결케 함은 신적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될 때 성취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마게도냐의 부르심은 40절의 감추어진 역사가운데 나타난다.

"우리의 도시들에서 단호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때가 이르렀다. 누가복음 21장을 읽으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며, 끝의 이 세대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그 일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도시들에 있는 사람들 앞에 진리를 제시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남을 헐뜯는 일에 조금의 시간도 허비하지 말라. 모든 다툼은 그쳐야 한다. 우리는 형제처럼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가 우리 위에 비치게 된 채로 돌아오자.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산이다. 주의 율법에 계시된 바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있다. 피상적인 읽기는 많았으나, 참된 연구는 얼마나 있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사시면서 바로 그 율법의 교훈들을 세상에 전파하셨다.

"그 일이 의 가운데 속히 단축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완성에 이르기까지 추진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더욱 끈기 있고 더욱 경건해져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단지 활동적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활동이 실제로 효력을 나타내도록 그것을 집중해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의 일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의 설교에는 더욱 설득력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성령의 검은 새롭게 날이 서서 능력 있게 내보내져야 한다. 영원의 모든 실재가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인가?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전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를 원한다." Australian Union Conference Recorder, 1906년 10월 1일.

산은 또한 지성소이기도 한데, 바로 그곳에서 신성은 우리의 인성과 결합되며, 누가복음 21장은 도성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전해야 할 마지막 세대를 위한 기별이다. 도성들에 대한 경고는, 우리가 산으로 나아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거절할 경우, 천사들이 수행하게 될 사업이다. 그 사업은 도성들을 위한 것인데, 이는 마지막 세대가 “수천의 도시들”이 멸망당하게 될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도성들의 멸망에 관한 예언적 기간은 내슈빌의 불덩이들로 시작되며, 경고의 사업도 거기서 시작되고, 그 사업은 누가복음 21장에서 확인된다. 여러 해에 걸쳐 우리는 누가복음 21장이 셋째 화의 이슬람에 관한 경고임을 거듭 제시해 왔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고대 이스라엘이 거절당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교황권의 박해로 인한 암흑시대의 끝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추적하셨고, 이어서 밀러파 역사를 열어 준 표징들에게까지 나아가셨다. 밀러파 역사는 십사만 사천의 역사를 예시한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들이 있겠고, 땅 위에는 민족들이 곤고와 혼란 가운데 있을 것이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두려워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쇠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24-27.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교황권의 1,260년 통치가 예언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음을 밝히고, 누가는 1798년에 이방인의 때가 성취되었음을 밝힌다. 이어서 그리스도께서는 밀러 운동을 표지하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를 말씀하시며,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를 당하며;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라는 말씀으로 결론지으셨다. 누가복음의 “민족들의 곤고”는 요한계시록의 “민족들의 분노”이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였으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이르렀으며, 또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때가 이르렀고,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요한계시록 11:18.

하나님의 “진노”는 일곱 마지막 재앙 가운데 나타나며, 미가엘이 일어서시고 인간의 은혜의 시기가 마쳐질 때 시작된다. 민족들이 분노하는 일은 은혜의 시기의 종결로 이끄는 기간이다. 민족들의 분노는 세 번째 화의 이슬람이 도래한 9·11에 시작되었으며, 이로써 늦은 비의 도래가 표지되었다.

나는 이방들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죽은 자들을 심판할 때가 서로 엇갈려 있으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뒤따르는 별개의 것들임을 보았다. 또한 미가엘이 아직 일어서지 아니하였고,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도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았다. 지금은 이방들이 분노하고 있으나,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성소에서의 당신의 일을 마치시면, 그분은 일어서서 복수의 옷을 입으실 것이며, 그때에 마지막 일곱 재앙이 쏟아질 것이다.

“나는 네 천사가 예수께서 성소에서 하시는 사업을 마치실 때까지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을 것이며, 그 후에 일곱 마지막 재앙이 이를 것을 보았다.” 초기문집, 36.

밀러파의 역사에서 열국의 분노, 혹은 누가 기록한 바 “열국의 곤고”는 이슬람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1838년에 터키는 이집트와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집트는 터키의 세력을 전복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였다. 이를 막기 위하여 유럽의 네 강대국, 곧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터키 정부를 지탱하고자 간섭하였다.” 우라이어 스미스, Synopsis of Present Truth, 218.

1838년에 이른바 “동방 문제”가 열국을 뒤흔들고 있었는데, 그 “동방 문제”는 곧 이슬람, 성경의 동풍이었다. 밀러 운동의 역사는 열국이 이슬람에 의해 흔들린 후에 주께서 구름 가운데 지성소로 오시는 모습을 보여 주며, 이로써 주께서 재림 시 구름 가운데 오실 때를 예표한다.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슬람은 열국을 괴롭히며, 이것이 베드로가 “수천 개의 도시들”의 멸망에 앞서 여러 도시들에 선포하도록 받은 기별이다. 도시들의 멸망의 기간은 내슈빌의 불덩이들로부터 시작된다.

“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거의 상상승배에 넘겨진 수천의 도시들에 임박한 멸망에 대한 감각이 있었더라면! 그러나 진리를 선포해야 할 많은 이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다. 하나님의 회심시키는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에 임할 때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비판하고 헐뜯으려는 성향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빛이 세상에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위치에 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비판과 그들의 고소는 그칠 것이다. 원수의 세력은 전투를 위하여 집결하고 있다. 엄청난 투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나의 형제자매들이여, 함께 밀착하라, 함께 밀착하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너희는 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너희는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할 자로 삼으며 그를 너희가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니,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엎드려져 상하며 울무에 걸려 사로잡히리라.’”

“세상은 하나의 극장이다. 그 배우들인 세상의 거민들은 마지막 큰 드라마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인류의 대중 사이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일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 그분의 반역적인 신민들에 관한 그분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동안 혼란과 무질서의 요소들이 세력을 떨치도록 허락하고 계시기는 하나, 세상이 사람들의 손에 맡겨진 것은 아니다. 아래로부터 오는 한 권세가 드라마의 마지막 큰 장면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니, 곧 사탄이 그리스도로 나타나며, 비밀 결사들 속에서 서로 결속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역사하는 것이다. 연합하려는 열정에 굴복하는 자들은 원수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따를 것이다.”

“범죄가 거의 그 한계에 이르렀다. 혼란이 세상에 가득하며, 머지않아 큰 공포가 인류에게 임하려 하고 있다. 끝이 매우 가깝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곧 압도적인

놀라움으로 세상에 들이닥칠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Review and Herald, 1903년 9월 10일.

“혼란과 무질서의 요소들”은 화잇 자매가 “고등 교육”이라고 밝히는 체계의 열매로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녀는 그것을 또한 “불법의 비밀”이라고 밝힌다. 내슈빌의 파르테논 신전은 거짓 교육의 상징이며, 그것은 지금 “한때 권세를 잡는” “혼란과 무질서”를 산출하고 있다. 내슈빌에 임하는 불덩이들은 이슬람에 의해 가져와지며, 그것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 내슈빌이 타격을 받을 때 한밤중 외침의 선포의 짧은 기간이 시작되며, 그것은 일요일 법으로 이어지는데, 그곳에서 이사야의 악한 “동맹”은 세상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으로 확인되는 단일 세계 정부를 강제로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최종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악한 동맹에 대한 이사야의 규정은 십사만 사천의 인침과 일치한다.

이 백성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는 “동맹이다”라고 말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거룩하게 하라. 그분으로 너희가 두려워하게 하며, 그분으로 너희가 무서워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울무와 덧이 되시리라. 그들 가운데 많은 자가 걸려 넘어지고, 엎드러져 깨지며, 울무에 걸리고, 붙잡히리라.

증거를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나는 야곱의 집에 대하여 그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징조와 기사들이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된 것이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신접한 자들과 지절거리고 속삭이는 술객들에게 구하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이 말씀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 속에 빛이 없음이라. 이사야 8:12-20.

화이트 자매의 이 구절은 “혼란과 무질서”의 시기가 “사탄이 그리스도로 오는” 일로 이어진다는 점을 밝힌다. 사탄은 일요일 법령 시기에 그리스도를 사칭하여 나타난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면서 교황권 제도를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법령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의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될 것이다. 개신교가 그 손을 심연 너머로 뻗어 로마의 세력의 손을 붙잡을 때, 또 그가 끝없는 낭떠러지를 넘어가 심령주의와 손을 맞잡을 때, 이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서 우리 나라가 개신교적이며 공화정적인 정부로서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배격하고 교황권의 거짓과 미혹을 퍼뜨리기 위한 대비를 갖추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사탄의 놀라운 활동의 때가 이르렀고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교회증언』 5권, 451.

“혼란과 무질서”의 시기는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전개된다. 일요일 법령 직전에, 엑서터 장막집회와 오순절 전에 다락방에서 보낸 열흘로 예표된 기간에, 십사만 사천은 “형제자매들이여, 함께 밀착하여 ... 그리스도와 결합”해야 한다. 인침은 일요일 법령 이전에 이루어지며,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악한 동맹은 하나의 세계 정부를 세우는 최종적 일을 시작한다.

인치는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의인들에게는 성소가 되시나, 악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실 것이다. 그분은 “예루살렘 거민에게 울무와 덧”이 되실 것인데, 그들은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지만, 인침을 받는 소수에게는 “그가” 그들의 “두려움”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와에게 결핍되어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두려움과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지닌다. 이 두 종류의 두려움은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는 자들과 실패하는 자들을 구분한다. 통과하는 자들은 인침을 받으며,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은 숫자 오로 대표되는데, 이는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부서지고, 울무에 걸리고,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혼란과 무질서의 기간이 있는 동안, 일요일 법령 이전에 일어나는 것으로 표상된 인침의 시기는 열 처녀의 비유가 성취되는 때이다.

넘어지는 많은 이들과 대조적으로 인침을 받는 소수는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며, 이로써 “기다렸던” 슬기로운 처녀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또한 두 부류의 처녀들 안에는 거룩하게 된 예언적 기다림과 거룩하게 되지 못한 예언적 기다림이 있으며, 그것은 두 종류의 두려움에 상응한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신랑이 더디 오는 것으로는 주께서 오시리라고 기대되던 때가 지나가고, 실망이 이르며,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표상되어 있다. 이 불확실한 시기에 피상적이고 마음이 나뉜 자들의 관심은 곧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노력도 느슨해졌다. 그러나 그 믿음이 성경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에 기초한 자들은 그 발 아래 바위를 두고 있었으므로, 실망의 파도가 그것을 씻어 버릴 수 없었다. ‘그들이 다 졸며 잘새’ 곧 한 부류는 무관심 가운데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버린 채 그러하였고, 다른 한 부류는 더 분명한 빛이 주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그러하였다. 그러나 시련의 밤에 후자의 부류도 어느 정도 그 열심과 헌신을 잃는 듯 보였다. 마음이 나뉜 자들과 피상적인 자들은 더 이상 그 형제들의 믿음에 의지할 수 없었다. 각 사람은 스스로 서거나 넘어져야 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395.

거룩하게 기다리는 자들은, 일요일 법령의 때에 세상을 향하여 기치로 높이 들릴 때, “징조와 기사”가 되어야 한다.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쟁점은 “신접한 자와 마술사 곧 지절거리며 중얼거리는 자들”의 지식을 대표하며, 또한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식별되는 지식을 대표한다. 이것은 하와와 아담에게 그러하였던 것과 동일한 시험이다. 우리는 진리가 오류와 섞이고 혼합된 교육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씀 위에 설 것인가? 이는 그들이 이 말씀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참된 교육과 거짓 교육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에서 진리의 주요한 한 갈래이다. 내슈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의 상징이며, 이는 소돔이 방탕의 상징인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고, 뉴욕이 미국의 경제력의 상징이며 펜타곤이 그 군사력의 상징인 것과도 같다.

베드로는 성전 시험을 상징하는 내슈빌의 불덩이들 앞, 곧 파니움과 산 위의 문턱에 서 있다. 그는 불덩이들이 떨어질 때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책망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는 것과, 내슈빌과 미국과 세상이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슬람의 기별은, 갈멜에 내린 불이 엘리야가 참선지자였음을 확증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기별자들을 확증한다. 그러나 내슈빌에 대한 경고는 단순히 셋째

화의 이슬람에 관한 것만이 아니며, 더구나 그 기습 공격에 어떤 종류의 무기가 사용되는가에 관한 것은 더욱 아니다. 경고의 기별은, 왜 이슬람이 심판을 집행하도록 허용되는지, 곧 수천의 도시들이 멸망하는 기간을 시작하는 그 심판이 왜 허용되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슬람이 내슈빌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가하리라는 사실을 미리 밝히는 것은 그 기별자들을 입증할 것이지만, 그것이 하는 일이 전부라면 불완전한 경고이다.

내슈빌의 불덩이들은 일요일 법으로 끝나는 짧은 기간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 기간의 시작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일요일 법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 시험에 실패할 경우 어떤 결과가 따를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셨다. 화잇 자매는 “원인으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밝히며, 성경은 “원인”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아니한다고 밝힌다.

새가 떠돌아다니고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같이,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아니하리라.  
잠언 26:2.

내슈빌의 불덩이들은 다가오는 “결과”이며 “저주”이다. 경고의 기별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지자 요나의 기별은 단순히 사십 일 후에 있을 멸망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았으며,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부흥과 개혁을 일으켰다. 드러난 것은 왕과 그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사실이었다. 요나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멸망을 말하였고, 그것이 그들의 사악하고 악한 생활 방식 때문임을 말하였다.

그 말씀이 니스웨 왕에게 이르매, 그가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로 몸을 가리며 재 가운데 앉았더라. 왕과 그의 대신들의 조서로 니스웨에 선포하고 공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것도 맛보지 말게 하며,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게 하라. 오직 사람과 짐승이 다 굵은 베를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 있는 강포에서 돌이킬지이다. 요나 3:6-8.

이슬람은 나팔의 세력이며,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의 일곱 나팔과 또한 16장은 특정한 예언적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처음 네 나팔은 321년에 첫 번째 일요일 법을 제정한 제국 로마에 내린 심판이었다. 그 다음 두 나팔은 538년에 일요일 법을 제정한 교황권 로마에 내린 심판이었다.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의 일곱 나팔은, 일요일 강제를 이유로 인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요한계시록 16장의 일곱 마지막 재앙을 예표한다.

내슈빌의 경고의 기별은 일요일 법으로 인도하는 발자취를 식별해야 하며, 예언적 증언에 근거할 때 심판은 원인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따른다. 심판은 일요일 준수 강제의 결과이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40절의 숨겨진 역사의 다섯 증인은 서로 다른 증언을 제공하지만, 인간 증인들과는 달리 모든 예언의 노선은 함께 어우러진다. 미국에서 궁극적인 일요일 법의 발자취를 식별하는 일은, 베드로가 내슈빌의 불덩이들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널드 트럼프의 증언을 결합할 때 이루어진다.

내슈빌의 경고가 세상에 대하여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점에 사람들과 나라들에 대한 당신의 최종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시들의 멸망의

기간이 시작되며, 곧바로 일요일 법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서는 국가적 배도가 국가적 파멸로 뒤따른다. 그 후 사탄이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나타나고, 열 왕이 그들의 나라를 환상(異象)을 확립하는 네 백성 중의 강포한 자들에게 주기로 동의함으로써 악한 동맹이 세워진다. 내슈빌의 경고는 도널드 트럼프가 짐승에게 우상을 세우는 것으로 표상되는, 내슈빌에 앞서는 역사로 제시된다. 트럼프의 기별은 내슈빌의 불덩이들에 앞서는 경고의 나팔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다룰 것이다.